

'올해는 전라도 방문의 해'

전북-광주-전남 참여 호남권 관광진흥협, K-페스티벌 방문객 대상 홍보

전북도, 광주광역시, 전남도가 참여한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기간 중에 열리는 K-페스티벌(Festival)에 참가, 축제 방문객 대상으로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라도 3개 시도는 K-페스티벌 기간 중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전라도 천년 명품여행상품'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앱)' 홍보로 전라도 방문 분위기를 조성한다.

K-페스티벌은 서울 여의도 벚꽃 축

제기간 동안 여의도에서 열려서 1일 평균 1만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 및 축제 박람회이다.

올해는 'K-Festival 2018 파이팅 코리아 내 고향 페스티벌' 명칭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전라도의 역사, 맛, 힐링, 야시장 등 테마별로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선정된 15개 여행사 31개 천년 명품 여행상품을 홍보했다.

또한 게임으로 즐기면서 선물도 받고 전라도 주요 관광지 100곳을 여행할 수 있는 '전라도 100선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 홍보에도 주력했다.

박명용 관광총괄과장은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 기간에 서울 시민들에게 전라도의 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6일 도청 공원에서 열린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경수 35사단장,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예비군가를 제창하고 있다.

예비군 창설 50돌 "후방은 우리가 지킨다"

도, 기념행사서 안보 결의... 육성발전 근로자 시상식도

전북도는 지난 6일 도청 공원에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향토 예비군 등 민·관·군·경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창설 제5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향토예비군은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중요시설을 방호하고, 치안 문제를 지원하면서 재난 복구에 나서는 등 지역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후방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전북의 안보와 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예비군 육성발전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국방부장관 표창에 군산시 옥구읍대 5급 황대은씨 ▲전라북도지사 부대표창에 익산시 용포/성당/함라면대와 고창군 지역대 ▲전라북도지사 개인표창에 103연대 2대대 군무원 정경훈, 106연대 1대대 군무원 방경배, 익산시 용안/용동/낭산면대 군무원 신양용, 제35보병사단 상사 송상도,

제35보병사단 군무원 김지혜, 103연대 4대대 군무원 김승환, 제35보병사단 소령 최현호, 익산경찰서 순경 최지현, 무주경찰서 경감 김갑중씨 ▲제35사단장 개인표창에 남원시 노암동대 5급 장흥규, 익산시 인화동대 5급 정광문, 장수군 지역대 7급 임진섭씨 ▲전북지방경찰청장상 전주시 완산경찰서 경비과 경장 정영준, 군산시 임피/서수면대 5급 권오석, 김제시 죽산/부랑/성덕면대 5급 이원오, 105연대 1대대 대위 이수민씨가 받았다.

/김진성 기자

6·13 지선 순창군수 민주당 공천 '뜨거운 감자'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수 후보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인 공천 심사 과정의 핵으로 떠올랐다.

황 군수 재임 기간 중 측근(비서실장과 부인) 비리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군민소환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측근 비리가 연루된 현역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공천을 준 사례가 없다.

지난 6일 민주당 전북도당 6·13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희승·공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현역 시장·군수(7인) 중 측근 비리에 연루된 곳은 순창군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19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전북도당 공심위는 활동 초기부터 황 군수의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6년 순창군 군민소환운동을 펼쳤던 지역 대표들이 지난 달 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에 황 군수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본격화됐다.

실제 순창 군민소환운동이 펼쳐질 당시 황 군수의 비서실장이었던 권

모씨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4년 실형을 받았다. 권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중이다.

이와 더불어 황 군수 부인 권모씨도 2016년 당시 인사 청탁과 관련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 다만 부인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현재도 관련 사안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인 권씨는 이 사건에 앞서 황 군수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

민주당은 역시 지난 2014년 송영선 진안군수 비서실장이 관내 일부 기자들에게 떡값을 준 혐의로 기소되자 공천에서 배제했다. 홍 군수와 송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하지만 황 군수는 일단 서류로 진행된 1차 심사는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1차 심사는 중대 범죄와 연루된 전과와 서류의 미미 여부 등을 보는 것으로 본 평가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면접 심사부터"라며 "이때부터 황 군수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순창군에서 민주당 공천 신청서를 낸 인물은 황 군수를 비롯 장정일·양영수 군수 예비 후보 등 3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심위는 이들 3명 후보 중

황숙주 군수 재임기간 중 발생한 측근비리로 군민소환운동 일어나 도내 현역 시장·군수 7인 중 유일

지난달 말 도당 공심위서 배제방안 논의 군민소환운동 대표들이 배제 청원서 제출 황 군수, 서류로 진행된 1차 심사는 통과

위반으로 관련자 2명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재선에 도전하는 자당 소속인 강현욱 전북도지사에 대해 측근의 구속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 공천에서 배제했다.

다만 강 지사는 당시 당의 공천 배제 입장을 전달받고 미리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2014년 무주군수 공천에서 당시 현역 군수였던 홍락표 군수의 비서실장이 비위 문제(불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1명을 탈락 시킬 예정(최종 경선 후보 2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6일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측근 비리 연루자들을 배제했는데 여당이 된 만큼 그 원칙을 더 지켜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 군수는 "모두 지난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전북도, 군산 위기지역 지원사업 후속조치 점검

근로자 생활 안정 등 신속집행 가능 사업계획 확정 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전북도는 지난 6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지역이 산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되고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군산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별 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통해 지역 위기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집행과 대체 보완사업에 대한 추

진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후속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구체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집행이 가능한 근로자(실지자) 생활 안정, 재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등 총 14개 세부사업 30억원 규모의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5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원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조성 등 대체보완사업을 구체화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